3. 나를 다스리는 글

선조들은 출세와 부귀영화만을 좇지 않고 참된 나를 알기 위한 마음공부에 열중하였다.
선현들의 짧은 글로 현대 사회에서 자기 수양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자.

我腹旣飽면 不察奴飢라. "여유당전서"

破山中賊易나 破心中賊難이라. "양명전서"



새로 배울 한자

飽 **포** 배부르다　　奴 **노** 종　　飢 **기** 굶주리다　　賊 **적** 도둑　　勵 **려** 힘쓰다

- 易의 의미를 알 수 있다.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

及時當勉勵니 歲月不待人이라. “도연명집”

良藥苦於口나 利於病이요

忠言逆於耳나 利於行이라. “설원”



읽고 풀이하기



我腹既飽，不察奴飢.
나 이미

직역 ☞

의미 ☞

破山中賊易，破心中賊難.
쉽다

직역 ☞

의미 ☞

及時當勉勵，歲月不待人.
미치다(이르다) 스스로 힘씀

직역 ☞

의미 ☞

良藥苦於口，利於病，忠言逆於耳，利於行.
~에 이롭다

직역 ☞

의미 ☞

*易: ① **이** 쉽다
容易(용이)
平易(평이)
難易度(난이도)
② **역** 바꾸다
交易(교역)
貿易(무역)
易地思之(역지사지)

새로 배울 한자

貿 **무** 바꾸다

문장의 구조(I)

- 주술(주어+서술어): 我腹(주어) 既飽(서술어): 내 배가 이미 부르다.
- 주술보(주어+서술어+보어): 良藥(주어) 苦(서술어) 於口(보어):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단문을 우리말로 표현하기

단문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

① 我腹旣飽, 不察奴飢.

⇨ 예) 네 입만 입이더냐!

② 破山中賊易, 破心中賊難.

⇨

③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

⇨

④ 良藥苦於口, 利於病, 忠言逆於耳, 利於行.

⇨

생각 넓히기

인문학 더하기

'한 치[一寸]'는 얼마나 될까?

도량형은 길이[度], 분량[量], 무게[衡] 단위를 재는 법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자, 계량컵, 저울 등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무엇으로 도량형을 측정했을까? 선조들이 길이의 단위로 사용한 '치[寸]', '자[尺]', '길[丈]' 등은 모두 우리 신체 부위에서 유래한 것이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 식견이 얕을 때 '한 치 앞을 못 보다.', '한 치 양보도 없다.', '한 치 오차도 없이' 등에 사용한 '한 치'는 손목에서 맥이 뛰는 곳까지의 길이를 나타낸다. 한 자[尺]의 1/10, 약 3.03cm이다.

'월척을 낚았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의 '척(尺)'은 '한 자'로 손목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이며 약 30.3cm이다. 즉 '월척(越尺)'은 '한 자가 넘는', '삼척동자(三尺童子)'는 '키가 석 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뜻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의 '길[丈]'은 열 자[尺]로 머리 꼭대기에서 밭 끝까지의 길이, 즉 사람 키에서 유래한 것이다.

어휘력 키우기



1 '艸(艹)'가 들어간 한자

芳 방 꽃답다 _芳年 방년　　芽 아 싹 _發芽 발아　　莊 장 별장 _別莊 별장
蔬 소 푸성귀 _菜蔬 채소　　薦 천 천거하다 _推薦 추천　　蒼 창 푸르다 _蒼空 창공

2 '口'가 들어간 한자

可 가 옳다 _可否 가부　　叫 규 부르짖다 _絕叫 절규　　吸 흡 마시다 _呼吸 호흡
哭 곡 울다 _哭聲 곡성　　吐 토 토하다 _實吐 실토　　啓 계 열다 _啓蒙 계몽

3 학습 용어_국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풀이와 의미를 알아보자.

國語

補語　　隱語　　含蓄
卑俗語　　慣用語　　標準語

4 어휘 의미 확장하기

- 古稀 **고희** 예로부터 드물다 → 70세를 이르는 말
- 幽明 **유명** 어둠과 밝음 → 저승과 이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刻印 **각인** 도장을 새김 → 마음이나 기억 속에 뚜렷하게 새겨짐.
- 鼓吹 **고취** 북을 치고 피리를 붊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넣음.
- 管見 **관견** 대롱 구멍으로 사물을 봄 → 좁은 소견이나 자신의 소견을 겸손하게 이름.

새로 배울 한자

芳 **방** 꽃답다　　芽 **아** 싹　　莊 **장** 별장　　蔬 **소** 푸성귀　　薦 **천** 천거하다
蒼 **창** 푸르다　　叫 **규** 부르짖다　　吸 **흡** 마시다　　哭 **곡** 울다　　吐 **토** 토하다
啓 **계** 열다　　蒙 **몽** 어둡다　　補 **보** 돕다　　隱 **은** 숨다　　含 **함** 머금다

확인하기



1. ㉠과 쓰임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破山中賊㉠易, 破心中賊難.

보기

ㄱ. 交易　　ㄴ. 貿易　　ㄷ. 平易　　ㄹ. 容易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 及時當勉勵, ㉠歲月不待人.

① 歲　② 月　③ 不　④ 待　⑤ 人

3. ㉠의 독음으로 옳은 것은?

> 良藥苦於口, 利於病, ㉠忠言逆於耳, 利於行.

① 충고　② 충언　③ 조언
④ 제언　⑤ 제고

蓄 **축** 쌓다　　卑 **비** 낮다　　慣 **관** 버릇　　標 **표** 표시　　準 **준** 법
稀 **희** 드물다　　幽 **유** 그윽하다　　刻 **각** 새기다　　鼓 **고** 북